



전남개발공사, 제5기 도민참여단 발대식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4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제5기 지역상생 도민참여단’ 16명을 공개 모집하고 발대식을 진행했다. (사진)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참여단은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의 비전, 주요 사업 소개, 초청 앞 전면광장 새이름 공모전 1차 심사가 이뤄졌다. 도민참여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해 전남개발공사와 도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장은 “도민참여단이 전남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전남테크노파크, 여수 묘도서 과학문화 체험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삼암초등학교 묘도분교장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섬길따라 과학의 꿈을 잇다’ 행사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해당 프로그램은 과학문화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3D 프린팅과 화학반응을 활용한 디퓨저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센터는 다음달 중 전남 서부권에 위치한 섬을 방문해 같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과학은 지역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 “모든 도민이 양질의 과학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효덕지구대, 노인 복지시설 홍보활동

광주 남부경찰 효덕지구대가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방문, 공동체 신뢰회복과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친화적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활동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찾아, 지역사회 전반의 기초질서 의식을 높이고, 5대 기초질서(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압표매매) 위반 행위의 일상 속 올바른 질서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기원 지구대장은 “기초질서 확립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질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준 기자**



전남 낙농인들, 저소득 환자 진료비 후원

전라남도 낙농인 모임 ‘일사천리회’가 15년째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은 최근 병원 5층 회의실에서 ‘일사천리회’로부터 진료비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후원으로 2011년부터 병원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총 81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강호철 진료부원장, 권성영 기획부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함께 박충남 회장을 비롯한 회원 12명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나눴다. ‘일사천리회’는 곡성, 나주, 영암, 함평 등지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바쁜 농장 운영 중에도 매년 병원을 찾아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박충남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여대 MAUM돌봄, 재난·안전 교육

광주여자대학교 MAUM돌봄 융합전공이 RISE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

16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MAUM돌봄 융합전공(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이 지난 14일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RISE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학생 66명이 참여했다. 교육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군간호훈련센터장 관계자들이 특강 강사로 초청됐다.

첫날에는 교내에서 재난간호 개념과 재난 심리, 중증도 환자 분류법 등에 대한 팀 활동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실습 중심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간호학과 4학년 김서연 학생은 “기후변화로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은 재난의 정의와 종류, 현장 대응의 실재를 배우는 데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북부경찰, 여름철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광주 북부경찰 범죄예방대응과는 16일 본존 생태 어린이 공원 내 공중화장실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성폭력 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북구청, 북구시설관리공단,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안전순찰대 등 3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또한 여름 휴가 기간 112 신고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제도와 단속도 병행했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여름 휴가철 무질서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름철 치안종합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광주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 격려금 전달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위원장 정선교 ㈜대명외식산업 대표이사)가 장애학생 태권도 선수들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유망주 육성에 힘을 보탰다. (사진)

16일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현성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상규 발전위원회 추진부위원장(㈜경서/EQ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장홍배 광주장애인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상진 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

석했다. 이번 격려금은 광주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 최덕영(16·운암중 3학년) 선수와 임지호(14·문성중 1학년) 선수에게 전달됐다. 두 선수는 모두 태권도 공인 2단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최덕영은 비장애인대회에서 3위를, 임지호는 제10회 한라배 전국장애인한마음태권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향후 광주장애인태권도를 이끌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다. **최동환 기자**



동부소방, 남광주역·지하철 공사현장 화재안전 점검

광주 동부소방서가 여름철 화재취약 장소를 방문해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사진)

광주동부소방서는 15일 남광주역과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을 찾아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하 공간 특성상 연기 배출과 피난이 어려운 데다,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추진됐다. 특히 지하철 역사와 공사현장은 구조적으로 대형 화

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소방서는 관계자들에게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정기적인 대응 훈련과 피난 유도 교육 실시 △초기 대응체계 확립 등을 당부했다.

김영일 서장은 “사고는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한다”며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자와 현장 직원 모두가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표창

엄길훈(사진 오른쪽) 광주체육고 교장이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체육유공자’로 선정돼 대한체육회장을 수상했다.

16일 광주체고에 따르면 엄길훈 교장이 지난 15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에서 학교체육 진흥부문 체육유공 표창을 받았다.

체육유공자 표창은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성과에 대해 보상에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엄 교장은 지난 1992년부터 33년 동안 중등 체육교사,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교육청 과장) 및 광주체고 교감·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주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특히 체육교사 근무기간 중 사이클 불모지인 광주지역 학교 사이클 감독을 맡아 양희진, 송경방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고, 교육전문



직 근무 중에는 합리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광주 관내 전체 운동부 육성학교에 전임운동부지도자를 배치하고 학교운동부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학교현장의 운동부 훈련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엄 교장을 포함해 학교체육진흥 2명, 전문체육진흥 8명, 생활체육진흥 4명, 해외동포체육진흥 1명 등 총 15명이 체육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최동환 기자**